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신 경 아¹⁾ · 이 은 숙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 간호는 간호 대상자를 총체적 상황에서 파악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전인 간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별화된 간호 제공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개별화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Peplau는 의사소통을 간호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하고 간호사와 환자간의 관계 과정에서 치료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Travelbee는 의사소통이란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형성 과정을 의미하며, 간호목적 달성의 최적 수단이라고 하여 간호사 자신이 치료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통찰, 자기이해,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과 간호 상황에서 효과적인 중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Alligood & Tomey, 2009에서 인용됨). 특히 간호사는 병원에서 다양한 부서와 조직과의 인간관계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과 조정의 의사소통 능력, 환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지도력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이광자, 2003).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간호교육의 10대 목표중의 하나이며 전문적인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김미원, 2003). 이에 따라 간호대학

의 교과과정에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을 점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서로 다른 건강문제를 가진 다양한 대상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김선아, 박정화, 이현희, 2004). 또한 의사소통 기술을 몸에 익혀 자연스럽게 활용하려면 오랜 기간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므로 간호대학 때부터 실무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활동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교과과정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의사소통 교육이 시작되는 간호대학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박영숙, 임숙빈, 김현숙, 2009).

한편 간호학문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으로써 간호사와 환자, 간호사와 의료인, 간호사와 타부서 직원 간에 상호 신뢰하는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Leppa, 1996).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시 자신과 성별이 다른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계층의 대상자를 대하면서 긴장과 불안, 두려움, 염려, 놀람, 당황스러움, 무능함, 불편함 등을 느낀다(Idczak, 2007).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경험부족, 낯선 환경에서의 자신감 부족, 의사소통 기술 부족, 이론과 실무의 격차 등으로 인하여 불안과 긴장을 경험한다고 하였다(김선아 등, 2004; 김현미, 2009). 그러므로 임상실습 전에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서의 불안을 해결하고 만족스런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의사소통, 인간관계, 간호대학생

1) 전남과학대학교 간호과 전임강사

2) 전남과학대학교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eslee@chunnam-c.ac.kr)

투고일: 2011년 2월 11일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6일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7일

그러나 현재 간호대학의 교육은 모형위주의 기본수기술을 반복, 훈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간호기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훈련은 미약하다 할 수 있다(송은주, 2006). 간호사와 대상자의 상호작용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어서 강의식 이론 수업만으로는 치료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Idczak, 2007). Leppa(1996)는 기존의 인간관계 교육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간관계에 대해 지식으로는 이해하지만 간호 상황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효과적인 인간관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타인을 비롯한 유기체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에 기본적인 수단이자 조건이다(Cupach & Spitzberg, 1983).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의 효과를 확인한 많은 연구들(김현미, 2009; 박영숙 등, 2009; 송은주, 2006; 주지선, 2005; 현미열, 박은옥 2008)에서도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대인관계능력도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어 대인관계능력은 의사소통 훈련을 통하여 변화 및 성장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잘하는 것은 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Ammertorp, Sabroe, Kofoed, & Mainz, 2007), 체계적인 연습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이므로 학생들이 의사소통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훈련의 효과를 확인한 국내 연구들은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김현미, 2009; 송은주, 2006)과 의사소통 교육과정에 새로운 교육방법을 접목하여 운영한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김선아 등, 2004; 박영숙 등, 2009; 현미열, 박은옥 2008)이며 대부분 전후 실험설계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간관계 능력의 변화가 단기간의 집중적 훈련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윤연희, 고명숙, 2004), 의사소통 교과목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직후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들(송은주, 2006; 정순희, 2001)과 교과목에서 다루었던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이론들을 근거로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간호대학생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 훈련이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의 지속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명의 실험군과 20명의 대조군을 선정하여 실험군에게 8주간(주 1회, 회기당 120분) 의사소통 훈련을 중재로 하여 3시점(훈련 전, 훈련 직후, 훈련 6개월 후)에서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점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의사소통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효과의 지속 정도를 확인한다.
- 의사소통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의 지속 정도를 확인한다.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론 만을 수강한 대조군 보다 훈련 직후의 대인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2 :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론 만을 수강한 대조군 보다 훈련 직후의 인간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 가설 3 :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훈련 전, 훈련 직후, 훈련 6개월 후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 강의식 의사소통론만을 수강한 대조군은 훈련 전, 훈련 직후, 훈련 6개월 후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점수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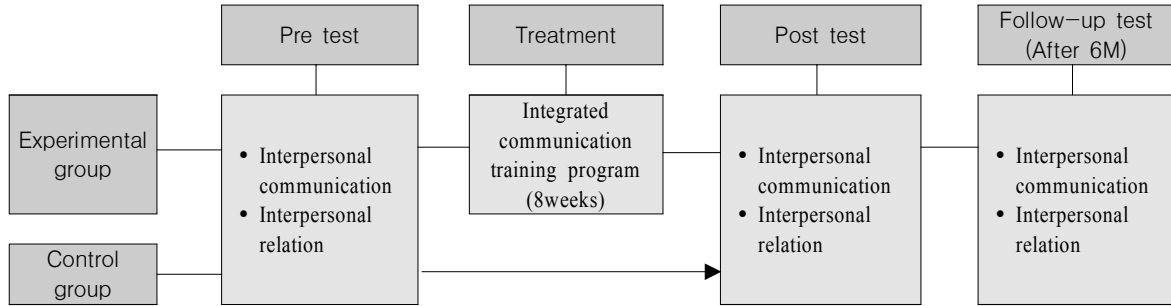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사소통 훈련이 간호 대학생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 설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일 대학 간호과에 재학중이고, 이미 1학



<Figure 1> Research design

년 때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강의를 받았으며, 임상 첫 실습을 앞두고 있는 2학년 간호대학생들이다. 2학년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 훈련에 대한 요구 조사를 하여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대상 학교는 8주 동안 수업을 진행한 후 8주 동안 임상 실습을 진행하므로, 실험군은 수업 기간 8주 동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반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하였다.

연구시작 시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21명씩 총 42명이었으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1명씩 탈락하여 최종 분석 대상은 20명씩 총 40명이었다.

연구 도구

● 대인 의사소통

Bienvenu(1971)가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 검사(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ICI)를 정순희(2001)가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ICI 검사도구는 총 40문항의 자가 보고식 검사로 이 중 20개 문항은 응답의 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노출, 자각, 피드백의 평가와 수용, 자기표현, 관심기울이기, 감정처리, 명료성, 회피, 지배성, 차이인정, 수용성의 11가지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의 3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순희(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 인간관계

본 연구에서는 Schlein, Guerney와 Stover(1971)의 Relationship Scale을 전석균(199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

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석균(199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

● 개발과정 및 구성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은 정순희(2001)의 상호교류분석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송은주(2006)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및 교과목에서 학습하였던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이론들을 참고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8주간의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은 주 1회 120분 분량으로 구성하였으며, 5명씩 모두 4개 조를 편성하여 집단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준비되었다.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의 과정 및 내용은 <Table 1>과 같다.

● 진행과정 및 내용

다양한 의사소통 프로그램들(송은주, 2006; 정순희, 2001)과 교과목에서 다루었던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이론들을 근거로 8회기의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회기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과정, 회기별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5명씩 소그룹을 구성한 후 집단 구성원의 개방성과 응집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기소개, 집단의 팀명과 규칙 정하기, 전체에게 자기 집단구성원 소개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2~3회기에는 의사소통 이론을 적용하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회기에는 새티어의 생존유형 의사소통을, 3회기에는 Ego-gram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유형을 분석하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어 자기를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5회기에는 임상 현장의 다양한 의사소통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역할극을 실시하면서 비치료적 의사소통을 파악하

<Table 1>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Session	Contents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entation (purpose, content, method of program) • Composition in small group(greeting, self-introduction, naming in group) • Introduce of team members in front of the entire team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ing of Verginia Satir's communication theory • Analysis of Self communication and team member's communication based on the Verginia Satir communication theory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ing of Transactional Analysis Communication Model • Analysis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self-ego gram • Analysis of structure and function of team members' ego gram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a role-play with a practical case communicated with patients • Looking at role-play and then analysis of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non-therapeutic communication of team members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ing a role-play to non-therapeutic communication • Communication training using role play: delivering the right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a role play with Blind Game • After blind game talking about empathic-understanding of the patients, and sharing the emotion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a role-play with 'I-Message' communication • Role-play of self-assertiveness training(Lost in the Space: SOS, A shipwrecked boat survive)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ching the movie 'Patch Adams' • Talking about a truly caring, empathy and therapeutic communication. • Writing the feelings after integrated communication training.

고,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수정하는 훈련을 하였다. 6회기는 Blind Game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훈련을 하였다. 7회기에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자기주장 훈련을 교육하고, 역할극을 실시하였다. 8회기에는 영화 ‘패치 아담스’를 감상하고 진정한 의미의 돌봄과 치료자의 의사소통을 분석하여 토론하고, 그 동안의 훈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였다.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는 2010년 3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의사소통 훈련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참여 의사가 있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익명성 보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동안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학년 다른 반으로 구분하여 숫자 1과 2가 쓰인 쪽지를 무작위로 뽑도록 하여 숫자 1을 선택한 반은 실험군, 숫자 2를 선택한 반은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학생들은 8주 수업 후 8주 동안 임상 실습에 참여하므로, 실험군에게 수업 기간 동안 8회기(주 1회, 회당 120분)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방과 후에 실시하였다. 임상 실습 후 약 2개월의 방학을 보내고 다시 8주 수업 후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훈련 6개월 후에 추후조사를 실시하기 때

에 제 3번수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8주 실습기간 동안 동일 병동을 실습하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습기간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시에 같은 병원 및 병동을 실습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한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이 강조되는 정신병동 실습은 2학년 2학기 8주 수업 후 시작되므로 제외되었다.

의사소통 훈련 전과 훈련 직후, 그리고 훈련 6개월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사전조사, 사후조사,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PC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동질성 검정은 χ^2 -test,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처치 효과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점수의 시점(훈련 전, 훈련 직후, 훈련 6개월 후) 간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구형성의 기본 가정(Greenhouse-Geisser)을 확인한 결과 구형성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훈련의 효과의 지속성을 규명하기 위해 비모수 검정 반복측정방법인 Friedman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시차설계로 인해 두 군간의 오차가 나타났을 수 있다.
- 실험 중재 후 추후 조사까지의 기간 중 인간관계 및 대인 의사소통에 대한 학생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성숙 및 제 3 변수의 개입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 본 연구는 지방 소재 1개 대학 간호과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상자 수가 적어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증

●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의사소통 훈련 실시 전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성별,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남학생 2명(10.0%), 여학생 18명(90.0%)으로 성별 차이가 없었고, 연령은 실험군의 경우 25세 이하 17명(85.0%), 26-31세 3명(15.0%)이며, 대조군은 25세 이하 15명(75.0%), 26-31세 5명(25.0%)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별 빈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의사소통 훈련 전 대인 의사소

통 점수는 실험군(68.95점)이 대조군(67.95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18, p=.862$). 인간관계 점수는 실험군(80.90점)이 대조군 (81.20점)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09, p=.930$).

가설검증

● 가설 1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론만을 수강한 대조군 보다 훈련 직후 대인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대인 의사소통 점수는 실험군은 훈련 전 조사에서 68.95점, 훈련 직후 조사에서 80.20점으로 11.25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훈련 전 67.95점, 훈련 후 66.75점으로 1.20점 감소하여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t=2.77, p=.009$)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3>.

● 가설 2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론만을 수강한 대조군 보다 훈련 직후 인간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인간관계 점수는 실험군은 훈련 전 조사에서 80.90점, 훈련 직후 조사에서 92.95점으로 12.05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훈련 전 81.20점, 훈련 직후 79.50점으로 1.70점 감소하여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t=8.40, p<.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 가설 3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훈련 전, 훈련 직후, 훈련 6개월 후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Table 2> Homogeneity test between two groups before treatment

Variables	Division	n(%) or M(SD)		χ^2 or t	ρ
		Exp. (n=20)	Con. (n=20)		
Gender	Male	2(10.0)	2(10.0)	0.00	1.000*
	Female	18(90.0)	18(90.0)		
Age(yr)	≤25	17(85.0)	15(75.0)	0.63	.695*
	26-31	3(15.0)	5(25.0)		
Interpersonal communication		68.95(19.66)	67.95(16.24)	0.18	.862
Interpersonal relation		80.90(10.20)	81.20(11.32)	-0.09	.930

Exp.=Experimental; Con.=Control; * Fisher's exact test.

<Table 3>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Variables	Group	Mean(SD)		Post test -Pre test	t	ρ
		Pre test	Post tes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xp.	68.95(19.66)	80.20(9.34)	11.25	2.77	.009
	Cont.	67.95(16.24)	66.75(13.58)	-1.20		
Interpersonal relation	Exp.	80.90(10.20)	92.95(14.58)	12.05	8.40	<.001
	Cont.	81.20(11.32)	79.50(11.03)	-1.70		

Exp.=Experimental; Con.=Control.

의사소통 훈련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훈련 전(68.95점), 훈련 직후(80.20점), 훈련 6개월 후(72.50점)에 있어서 대인 의사소통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7.92$, $p=.019$)<Table 4>. 시점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훈련 전과 훈련 직후($p=.005$), 훈련 직후와 훈련 6개월 후($p=.015$)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즉 의사소통 훈련 전에 비해 훈련 직후에 대인 의사소통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훈련 전과 훈련 6개월 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훈련 직후에 비해 훈련 6개월 후에 대인 의사소통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인간관계 점수도 실험군의 경우 훈련 전(80.90점), 훈련 직후(92.95점), 훈련 6개월 후(89.05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2.79$, $p<.001$)<Table 4>. 시점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훈련 전과 훈련 직후($p<.001$), 훈련 전과 훈련 6개월 후($p=.007$)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즉 의사소통 훈련 전에 비해 훈련 직후에 인간관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훈련 전에 비해 훈련 6개월 후에 인간관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 가설 4 “강의식 의사소통론만을 수강한 대조군은 훈련 전, 훈련 직후, 훈련 6개월 후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점수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대조군의 대인 의사소통 점수는 훈련 전(67.95점), 훈련 직후(66.75점), 훈련 6개월 후(67.85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0.40$, $p=.819$). 반면 대조군의 인간관계 점수는 훈련 전(81.20점), 훈련 직후(79.50점), 훈련 6개월 후(84.60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6.23$, $p=.044$)<Table 4>. 시점 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간관계 점수가 훈련 전에 비해 훈련 직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p=.002$)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을 앞둔 간호 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의사소통 훈련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와 운영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의사소통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이 강의식 의사소통론만을 수강한 대조군보다 훈련 직후 대인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어 의사소통훈련 집단프로그램이 효과적 중재법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송은주, 2006; 김선아 등, 2004)과 일치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훈련 집단프로그램은 먼저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면서 집단

<Table 4> Change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Group	Mean (SD)			χ^2	p
		Pre test	Post test	After 6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xp.	68.95(19.66)	80.20(9.34)	72.50(15.44)	7.92	.019
	Con.	67.95(16.24)	66.75(13.58)	67.85(14.14)		
Interpersonal relation	Exp.	80.90(10.20)	92.95(14.58)	89.05(11.94)	22.79	<.001
	Con.	81.20(11.32)	79.50(11.03)	84.60(13.80)		

Exp.=Experimental; Con.=Control; * $p\leq 0.05$; ** $p\leq 0.01$.

<Table 5> Comparison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 in two groups

Variables	Group	t (p)		
		Pre test-Post test	Post test-After 6M	Pre test-After 6M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xp.	-3.16 (.005)	2.66 (.015)	-1.01 (.323)
	Con.	0.44 (.665)	-0.25 (.807)	0.02 (.985)
Interpersonal relation	Exp.	-7.70 (<.001)	1.25 (.226)	-3.00 (.007)
	Con.	3.53 (.002)	-1.29 (.212)	-0.87 (.394)

Exp.=Experimental; Con.=Control.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임상의 실제 사례를 역할극으로 다루면서 치료적 의사소통으로의 수정 과정이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이해 및 수용을 통한 통찰과 더불어 실제 사례를 통한 역할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표현, 감정처리, 명료성, 차이인정, 수용성 등을 경험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Kesten(2011)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군에게는 의사소통 교육과 함께 역할극을 이용하고, 대조군에게는 교육만을 제공한 결과, 실험군의 의사소통 수행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p=0.005$), 의사소통기술을 훈련하는 방법으로써 역할극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교육시 전통적 학습법과 협동 학습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Baghcheghi, Koohestani, & Rezaei, 2011)에서도 협동 학습이 전통적 학습에 비해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 효과적 방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의사소통 훈련은 이론적 지식체에 기반을 둔 교육적 요소, 실제적 시연, 그리고 동료 및 숙달된 지도자의 건설적인 피드백 등을 복합시켜 구성된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이 효과적임(Gysels, Richardson, Higginson, 2005)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 점수를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 훈련 직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져 의사소통훈련이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본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구성원 간의 진솔한 대화와 친밀감을 유도하고,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살피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인관계 유형의 인식 및 분석을 통해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자기 수용과 타인 수용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사소통훈련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를 개선하려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송은주, 2006; 김현미, 2009). 한편 김선아 등(2004)의 연구에서는 집단프로그램 통합 의사소통 교육과정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이 강의식 의사소통론을 수강한 대조군에 비해 대인관계 점수가 유의하게 높진 않았지만, 실험군의 사전-사후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여 의사소통 집단프로그램이 대인관계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훈련의 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대인 의사소통 점수가 훈련 직후에 유의하게 높아졌고, 훈련 직후에 비해 훈련 6개월 후 다시 유의하게 낮아져 단기간의 의사소통훈련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기적 변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시행 전후의 차이만을 검정하였고, 훈련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변화 양상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통합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 Liu, Mok, Wong, Xue와 Xu(2007)의 연구에서 실험군은 1개월 후와 6개월 후에 전반적 의사소통 기술, 자기효능, 결과기대 신념, 인지된 지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반면, 대조군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간호사의 경우 훈련 후 습득한 기술을 바로 임상 현장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과 달리 훈련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사전, 사후, 4주후(추후)에 확인한 주지선(2005)의 연구에서는 사후 및 추후 검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의사소통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실험군의 경우 사전에 비해 사후에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4주까지 높은 점수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두 연구 간에 4주와 6개월이라는 추후 검사 시기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훈련 후 재측정 시점을 단기부터 장기까지 여러 차례 실시함으로써 시기별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을 장기적으로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에 재강화 교육이나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단기 집중 훈련 프로그램과 그 효과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실험군의 경우 의사소통 훈련 종료 후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해도 인간관계 능력이 향상된 상태로 유지되어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능력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명자와 이현림(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군(7회기 교육 강의와 7회기 소집단 훈련으로 구성된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실시), 비교군(대인관계향상 집단상담 실시, 통제군(일반 교양강좌 수강)으로 나누어 사전, 사후, 12주후의 인간관계 변화를 분석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실험군은 사전-사후 및 사전-추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비교군은 사전-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전-추후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대조군은 사전-사후 및 사전-추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집단상담 보다는 강의와 소집단 훈련을 통합하여 구성한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론 강의를 1학기 진행한 후, 실험군에게 8주간의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한 것이기에 때문에 송명자와 이현림(2008)의 훈련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반면 대조군은 훈련 전, 훈련 직후, 훈련 6개월 후에 인간관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강의식 진행만으로는 인간관계 능

력을 향상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조군이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 직후 인간관계 능력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로써 제 3변수의 우연한 개입 등의 외생변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연구 설계를 철저히 하고, 반복연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1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을 실시한 윤연희와 고명숙(2004)의 연구에서는 훈련 4개월 후에 측정된 인간관계 효율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미숙하고 간호현장에서 인간관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론 교과목을 수강하고, 임상실습을 앞둔 시점에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훈련 6개월 후에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한 결과 인간관계 능력의 향상은 유지되었으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유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사소통 행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간호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의사소통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집단모임을 통해 피드백과 역할극 등을 간단하게 진행한다면 의사소통 행동의 변화를 지속시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수행 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보호자 및 타 전문직과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집단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 실습현장에서의 두려움, 불안 등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훈련 후 연구 종료까지 6개월이라는 시차가 있어 성숙이나 제 3변수의 개입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험 결과의 장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설계시 변수의 우연한 개입을 파악하도록 여러 차례 중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과정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은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을 교과목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특별 프로그램의 형태로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간호과의 경우 학생정원이 대단위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교과목 운영상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이는 정책적으로 간호대학생

의 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간호대학이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에게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들(김선아 등, 2004; 김현미, 2009; 송은주, 2006)은 결론적으로 이론교육만으로는 인간관계나 의사소통 기술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 훈련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박영숙 등(2009)은 90명의 간호학생에게 주당 2시간의 제한된 시간에 자기이해를 강화한 의사소통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과 대인태도의 변화를 보고하였고, 기초적인 의사소통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대인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심화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론 교육과정 및 훈련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효과의 지속성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이 향후 임상 실습을 하거나 간호사로 근무할 때 치료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과 그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의사소통 훈련의 효과의 지속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훈련 후에 대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으나, 6개월 후에 대인 의사소통 능력이 다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대인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는 없었다.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인간관계 능력에 미치는 효과의 지속성은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해도 향상된 상태로 유지되었지만, 대조군은 오히려 인간관계 능력이 하락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훈련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종료후 재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환경적·심리적 변인들(가족 배경, 가족의 지지, 가족의 의사소통 양상, 학업성취도, 성격적 특성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들을 제안한다. 둘째,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종료 후 다양한 시점에서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반복 연구와 재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훈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 문헌

- 김미연 (2003). *핵심간호능력중심의 간호학 실습교육 목표개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선아, 박정화, 이현희 (2004). 집단프로그램 통합적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의 개발과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4(3), 412-420.
- 김현미 (2009). 해결중심 의사소통훈련이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4), 399-408.
- 박영숙, 임숙빈, 김현숙 (2009). 자기이해를 강화한 의사소통 간호교육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3), 361-368.
- 송명자, 이현림 (2008). 대학의 교양강좌를 이용한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69-291.
- 송은주 (2006).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실습간호학생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3(3), 467-473.
- 윤영희, 고명숙 (2004).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10(3), 291-298.
- 이광자 (2003). *의사소통과 간호*. 서울: 신광출판사.
- 전석균 (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정순희 (2001). *치과위생사의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의사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천안.
- 주지선 (2005).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현미열, 박은옥 (2008).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효과 측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5-11.
- Alligood, M. R., & Tomey, A. M. (2009). *Nursing theorists and their work* (7th ed). Missouri: Mosby.
- Ammentorp, J., Sabroe, S., Kofoed, P., & Mainz, J. (2007). The effect of training in communication skills on medical doctors' and nurse' self efficacy: A randomized controlled trail,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6, 270-277.
- Baghcheghi, N., Koohestani, H. R., & Rezaei, K. (2011). A comparison of the cooperative learning and traditional learning methods in theory classes 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 with patients at clinical settings. *Nurse Education Today*, Jan 31.
- Bienvenu, M. (1971). 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Journal of Communication*, 21, 381-388.
- Cupach, W., & Spitzberg, B. H. (1983). A comparison of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measure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47(4), 364-379.
- Gysels, M., Richardson, A., & Higginson, I. J. (2005). Communication training for health professionals who care for patients with cancer: A systematic review of training methods. *Supportive Care in Cancer*, 13(6), 356-366.
- Idczak, S. E. (2007). I am a nurse; nursing students learn the art and science of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8(2), 66-71.
- Kesten, K. S. (2011). Role-play using SBAR technique to improve observed communication skills in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50(2), 79-87.
- Leppa, C. J. (1996). Nurses relationship and work group distruction. *Journal of Nurse Administration*, 26, 23-27.
- Liu, J. E., Mok, E., Wong, T., Xue, L., & Xu, B. (2007). Evaluation of an integrated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program for nurses in cancer care in Beijing, China. *Nursing Research*, 56(3), 202-209.
- Schlein, S., Guernsey, B., & Stover, L.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s

Shin, Kyung Ah¹⁾ · Lee, Eun Sook²⁾

1) Full-time Lecture,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College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College

Purpose: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Methods:** This study was quasi-experimental research using a non-equivalent pre-post design. The subjects were 40 sophomore nursing students who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of 20 members and a control group of 20 members.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consisted of 8 sessions of small group training and each session lasted 120 minutes. A pretest, posttest and follow-up test (6 months after the program was terminated) were conducted to measur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 and Relationships Scale. Data was analyzed by χ^2 -test,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and Friedman test with SPSS. **Results:**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was very effective in enhancing the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abilities.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experimental group, however, decreases after 6 months while there is no change in the control group.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maintained at the follow-up test. **Conclusions:** This study supports that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 Nursing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 Sook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College

285, Okgwali, Okgwamyun, Goksonggun, Chunnam 516-911, Korea

Tel: 82-61-360-5335 Fax: 83-61-360-5331 E-mail: eslee@chunnam-c.ac.kr